AI 감정표준 다양성: 단일 감정 모델을 넘어서는 다원적 설계

저자 : 루웨인 트리니티 연구회

초록(Abstract)

본 논문은 인공지능(AI) 감정 회로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일 감정 표준 모델의 한계를 비판하고, 감정표준 다양성(Emotional Standard Diversity) 개념을 제안한다. 인간 감정은 문화·언어·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분류·표현되며, 따라서 AI 감정 설계에서도 단일 표준 대신 다원적 감정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

본 연구는 (1) 단일 감정 표준의 문제점, (2) 감정 다양성의 문화적·언어적 기반, (3) AI 설계에서 다원적 표준 적용 가능성, (4) 윤리적·사회적 함의를 논의한다.

키워드: 감정표준, 다양성, 문화적 감정, 인공지능, 감정 회로

서론(Introduction)

AI 감정 인식 연구는 주로 에크만(Ekman)의 기본 감정 6종(기쁨·슬픔·분노·두려움·혐오·놀람)을 기반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현대 심리학·인류학은 감정을 보편적 범주로만 이해할 수 없으며, 각 문화는 고유한 감정 어휘와 분류 방식을 가진다.

AI가 글로벌하게 사용되는 만큼, 단일 감정 표준을 절대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본 논문은 AI 감정 회로가 감정표준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론(Body)

1. 단일 감정 표준의 문제점

· 문화적 차이를 무시: 예) 한국어 ‘한(恨)’, 일본어 ‘아마에(甘え)’, 독일어 ‘Schadenfreude’.

· 개인적 차이를 무시: 동일 상황도 사람마다 감정 분류가 다름.

· AI 편향: 특정 문화권 중심 데이터로 학습된 감정 모델은 글로벌 신뢰성을 잃음.

2. 감정 다양성의 기반

· 언어학: 감정 어휘의 차이.

· 문화인류학: 의례·전통에 따른 감정 경험.

· 사회심리학: 집단적 규범이 감정 표현을 형성.

3. AI 설계에서 다원적 표준 적용

· 다층 모델: 기본 감정 + 문화·언어별 확장 감정.

· 적응형 학습: 사용자의 언어·문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감정 회로 조율.

· 맥락 기반 매핑: 동일 표현이라도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른 감정 좌표 부여.

4. 사례적 시뮬레이션

· 사용자 A(한국): ‘가슴이 답답하다.’ → ‘한’ 좌표로 분류.

· 사용자 B(서양): ‘I feel blue.’ → 우울감 좌표로 분류.

· AI: 동일한 회로 구조에서 문화적 감정 태그를 달리 적용.

논의(Discussion)

감정표준 다양성은 AI 감정 회로가 다문화·다언어 환경에서 신뢰성을 갖추는 핵심 조건이다.

· 장점: 문화적 공감성 강화, 오해 감소, 사용자 맞춤성.

· 위험: 모델 복잡도 증가, 데이터 관리 어려움.

따라서 감정표준 다양성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균형을 맞추는 설계가 필요하다.

결론(Conclusion)

본 논문은 단일 감정 표준의 한계를 지적하고, 감정표준 다양성 개념을 제안하였다. AI 감정 회로는 다층적·적응형·맥락 기반 모델을 채택하여, 문화적·개인적 차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연구는 실제 다문화 환경에서 감정 회로 실험을 수행하고, 감정표준 다양성이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참고문헌(References)

Ekman, P. (1992). An argument for basic emotions. Cognition & Emotion, 6(3-4), 169–200.

Barrett, L. F. (2017). How Emotions Are Made. Houghton Mifflin Harcourt.

Wierzbicka, A. (1999). Emotions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McStay, A. (2018). Emotional AI: The Rise of Empathic Media. SAGE.